

# 조선대 내달 차기 총장 선출 관심

### 대자협 선출 방안 합의...오늘 이사회 결정 주목

### 의대 vs 비의대 4~5명 후보들 물밑작업 치열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기로에선 조선대가 다음달 개교 73주년에 맞춰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강동완 전 총장을 복귀시키라'는 교육부와 강 전 총장 측 입장에 맞서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은 다음달 총장 선출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율을 마쳤다.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권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 4자 협의체인 대자협에 있다.

앞서 학교법인 이사회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에 22일 이사회가 열리는 전날까지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자협은 교평을 중심으로 기존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은 수정 직선제와 총장 추대, 배심원제 등을 도입한 혼합형 선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자협은 지난 2016년 4개 단위별 선거권 교수 76%, 정규직 직원 13%, 총학 7%, 총동창회 3% 기준을 토대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평 관계자는 "차기 총장 선출방안에 대해 대자협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사회 측은 대자협이 합의한 방안을 토대로 22일 열리는 이사회서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달 말 총장 후보와 접수와 선거운동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경 총장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강 총장 '복귀파'와 '퇴진파'가 양존해 향후 의견 조율

역시 속제다.

'총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교평 지도부에서 강 전 총장 복귀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보이는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차기 총장 입지자들의 물밑작업은 치열하다.

9개월째 직무대리 체제 속에 강 전 총장이 법원 결과에 따라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명예회복 후 곧바로 사퇴하면 차기 총장 선거체제로 전환돼 입지자들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 의대직전 보직교수 등 4~5명이 자선타던 거론되는 가운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 물이에 나서고 있다.

의학과 민영돈 교수와 독일어문학과 박대환 교수, 물리학과 이봉주 교수, 법학과 김병록 교수 등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대학 주변에서는 의대 대 비의대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출마 후보에 따라 변수가 많아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인 관계자는 "최초의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설립 73주년이 되는 다음달 29일 개교기념일에는 새롭게 선출된 총장이 조선대를 이끌게 하겠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교사 양성"

###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 취임



했다. 추진과제로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교육 환경 조성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자연친화적 캠퍼스 구축 ▲교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광주교육대학교가 21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제7대 최도성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 협의회장,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총동문회장, 전임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도성 총장은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미래형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교수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 총장은 1990년 광주교대 교수로 부임한 뒤,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입학사정관실 본부장,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기철 기자

# 5·18-부마항쟁, 전국화·진상규명 연대

### 역사적·사회문화적 공유 강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단체가 두 항쟁의 전국화와 진상 규명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1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화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송기인 부마재단 이사장,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이흥만 부마재단 이사, 이철우 5·18재단 이사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최갑순 부마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원'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연결고리를 공유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 16일 경남 창원

에서 첫 국가기념식으로 열리는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 두 단체가 함께 기념공연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1979년 부마항쟁 진압 작전 계획을 지휘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광주로 이어지는 민주화 열망을 무력 진압하고 정권을 탈취했다. 때려야 할 수 없는 두 항쟁의 연관성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부마를 경험한 이들이 광주 항쟁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부마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새 지평을 열고 5월의 광주를 만들어냈다"며 "40년간 이어져 온 부마와 5월 광주의 연대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단체는 간담회를 마친 후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를 주제로 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종찬 기자

# 송원대, 300억대 부동산 매각 추진

### 수익용 재산 증식 등 재정난 해소

송원대학교가 법인 소유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각한다.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와 수익용 재산 증식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에 따르면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1건, 교육용 기본재산 3건 등 모두 4건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입찰을 공고했다.

수익용 재산은 광주 서구 쌍촌동 서구 장례식장 대지 6,600여㎡, 건물 1만

6,300여㎡로 처분 예정액은 대지 218억 8,000만원, 건물 71억2,000만원 등 290억원이다.

서구 장례식장은 2014년 8월 개장했으며 연매출 3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교육용 재산은 광주 북구 누문동 송원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처분 예정액 8억6,800만원), 광주 남구 송하동 대지(1억1,700여만원), 광주 서구 광천동 도로(4,900만원) 등이다. /조기철 기자

대학측은 지역 부동산 경기 호조세에 맞춰 기본재산을 증식하려는 차원의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수익용 재산도 확대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액보다 시세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각 후에는 수익용 재산 확보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며 "학교법인 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건물 등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 등록은 다음달 3일까지다. /조기철 기자

###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경찰, 주·야 없는 스포트 단속

광주경찰청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한 주야간 구분 없는 스포트(Spot)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광주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37.8% 줄었으나, 보행자 관련 교통 사망사고가 일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서암대로와 필문대로(신안교삼거리-백림약국 사거리 구간) 등 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연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기자

### "네가 입주민 대표야?"

도리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을 폭행한 관리소장이 경찰서행.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소장은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장에서 'balcony에 물이 샌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 B씨를 다짜고짜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B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 주지 않아 대표자회의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폭행을 당했다"며 "입주자 대표가 아니면 민원도 제기하지 못하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의장에서 'balcony에 물이 샌다'고 민

원을 제기한 주민 B씨를 다짜고짜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B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 주지 않아 대표자회의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폭행을 당했다"며 "입주자 대표가 아니면 민원도 제기하지 못하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